

민심의 분노

요 며칠 새 어디를 가나 재벌 회장 부인과 장관부인들이 관련된 고가옷 뇌물수수 사건이 세론의 초점이 되고 있다. 검찰 발표와 당사자의 해명으로는 장관부인이 스스로 뇌물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 로비에 말려들어 오해를 받게 됐을 뿐이라고 하나 그럴수록 시중의 민심은 더욱 더 험악하다.

그러나 민심의 분노를 야기한 원인은 실제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보다는 고관 부인들이 집안으로 물러다니며 수백 수천 만원의 고가옷을 소유했다 다녔고 또 결국 실재하는 했지만 뇌물로 사법처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시도들이 있었다는 데 있는 것 같다. 물론 수천 만 원의 돈이 없어서 부도를 낸 중소기업이나 다니던 기업의 도산으로 실업자가 된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는 IMF 사태의 와중에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이 더욱 분노를 촉발했을 것이다.

우리 사회 지도층의 호화 사치생활과 부패가 드러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가까이서 최근 있었던 고관직 절도 범의 다분히 과장된 폭로극에서부터 멀리는 5공시절의 대도 조세형 사건에 이르기까지 지도층의 도덕적 실상이 드러날 때마다 온 국민이 분노하고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국민에게 사과한다. 법을 개정한다. 공직자 윤리강령을 만든다. 등의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결과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시중의 여론과 언론이 그토록 분노하고 때로는 사건 관련자를 엄중 문책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은 무슨 조화일까? 나는 이 점과 관련하여 우리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조건에서 장관을 교체하고 사건 관련자를 징계하는 것만으로도, 또 법을 바꾸고 정권을 교체한다고 해서 부패가 청산되고 사회의 도덕성이 확립될 것으로 믿는 것은 너무나 사안의 본질을

단순하게 보는 생각이다. 고위층 인사들의 도덕성은 우리 사회 전반의 도덕성으로부터 분리되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 전반의 도덕성의 표출이 바로 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성의 수준인 것이다.

이번 사건은 그간 우리 사회에서 문제로 지적되어온 연구주의, 부패의 유착관계, 법치외식, 박약, 물질만능주의 등이 집약적으로 응축되어 표출된 사건이다. 이런 사안이 어떻게 단순한 사건일 수 있겠는가?

실형 이번 사건의 처리와 관련해 현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는 사람들이 집권한 다 하더라도 사태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나는 단언할 수 있다. 그들이라고 과시적 소비와 부패의 사회적 연결고리에서 벗어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부패의 유착관계와 과시적 소비의 압박이 너무나 강해 아마 웬만한 의지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이러한 사회문화적 분위기에 맞서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심성구
(열린사회시민연합공동대표)

“ 옷 로비 의혹 도덕적 위기 해법 속고 계기 삼자”

“
이 말은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을 두둔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결코 아니다. 다만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지는 않는다. 한 사회의 생활방식은 건전성과 도덕성은 결코 짧은 기간에 확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장관의 교체나 실지어는 정권의 교체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그것은 사건이 발생한 후 뒤늦게 범비와 같이 끌어올렸다 곧 식어버리는 감정적 흥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낡은 의식과 관행의 힘은 너무나 강하고 끈질기게 사회 전반을 움아고 있어서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장기간에 걸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한 결코 청산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번 사건이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도덕적 위기의 본질과 해법이 무엇인지를 좀더 냉정하게 숙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相生으로 새 천년 맞는다”

정부, '매향찾기운동' 등 밀레니엄 사업 발표 '두 손 원리'는 화염사상...“불교가 이끌자”

'상생(相生)과 화해의 정신으로 즈른 해(새 천년)를 맞이한다'
4월12일 발표한 대통령 직속 '새천년준비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새 천년 맞이 사업의 개념과 기본계획을 밝혔다. 이어령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 천년은 대립·갈등의 개념인 '한 손 원리' 대신 융합·조화의 개념인 '두 손 원리'에 의해 움직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두 손의 원리'에 상생과 화해의 정신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새천년준비위원회의 상징 조형물인 '새 천년을 움켜쥐는 손'은 이같은 철학을 잘 드러내 보이고 있다.

상생과 화해의 '두 손 원리'에는 바로 불교의 화염 연기사상이 기초가 되고 있다. 새 천년을 여는 열쇠가 불교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상생의 원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자 불교의 핵심사상이기 때문이다.

20세기는 극단주의와 양극화의 시대였다. 이같은 갈등과 배제의 '한 손' 시대를 청산하고 시간과 공간, 자유와 평등, 개인과 공공, 문명과 자연이 화해하고 함께 사는(相生) '두 손' 시대가 되도록 하자는 청사진이 기념 사업의 바탕철학을 이루고 있다.

새 천년 사업내용은 ▲2000년부터 매 10년마다 1개의 문을 준공해 22세기까지 모두 12개의 '평화와 행복에 이르는 열두 대문'을 세워 희망을 완성하고 ▲열두 대문 앞에는 지구촌 형상의 평화기념관을 건립하며 ▲지난 천년 동안 땅속에 묻어 있던 향나무를 찾아 선조들의 '내리사랑'을 되새기자는 매향(埋香)찾기 운동을 펼치고 ▲새 천년을 동해안에서 맞는 국가적 이벤트 등을 마련하는 것 등이다.

특히 이같은 세계화·천년화 사업에는 56억7천만 원 후에 미북부처님이 하강해 미륵정도를 구현할 것이라는 불교의 미래관이 바탕을 이루고 있으며, 한국이 지향해야 할 '새 천년 정신'을 불교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새 천년 사업이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천년 후 우리 문화발전까지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륵불의 가르침을 받는 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라며 마을단위로 땅에 향나무를 묻었던(埋香) 우리 조상들의 정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위원장은 이를 '천년 의식'으로 표현하면서, 이것은 '세계화'(공간) '천년화'(시간)를 함께 추구하는 상생적 융합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불교)에 "진정한 생활 공동체에는 그 자체를 밝혀주는 신념과 지혜가 있



○새천년준비위원회의 상징 조형물인 '새 천년을 움켜쥐는 손'. 이 조형물을 조각한 여주 목야박물관 박찬수 관장은 "지혜와 행(行)의 화합으로 2천년을 맞이하자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어서 사람들이 서로 믿고 화합한다. 진실한 화합이야말로 진정한 생활공동체나 한 조직의 생명이다"라는 말이 있다. 새 천년은 온 국민이 함께 만드는 것이라는 준비위원회의 큰 틀은 바로 경진말씀과 다름없다. 미북부처님을 기다리며 용화세계를 열어가자는 자세, 그것이 바로 새 천년을 여는 지혜이며 불자들이 앞장서 새 천년을 이끌어 가야 한다.

새천년 준비위원회는 2001년 1월까지 활동하며, 준비위원회의 계획에 대한 이의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문을 열어놓고 있다. (02)732-2000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사형제도 폐지' 세미나 잇달아

"전향적 검토 이뤄져야"

사형제도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사형제도를 둘러싼 오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가 지난달 27일 창립 10돌 기념식과 함께 '인간 존엄성과 사형제도 폐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연데 이어,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도 31일 삼중스님 등 각계 종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열고 사형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같은 논란은 4월 유엔 인권위원회가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전세계가 사형을 일시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폐지'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에 앞서 한국을 방문한 유럽 연합 회원국 대사 초청 간담회에서 당시 박상천 법무장관은 "당장 폐지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 이 논란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존중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국가차원에서 보다 진지하고 전향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건강 해치는 세계1위 고교생 흡연율

지난달 31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세계 금연의 날'. 그러나 최근 실시된 고교생 흡연율이 세계 최고라는 조사결과가 이 날을 비웃고도 남았다. 남자 성인 흡연율도 72%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YMCA에서 실시한 고교생 흡연율 조사에 따르면 남학생은 절반 이상이, 여학생은 4명 가운데 1명 이상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기의 흡연이 성인의 흡연보다 훨씬 해롭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 이제 성인들은 물론 학교에서의 금연교육도 더욱 철저해진 형편이다.

옷로비 의혹사건 PC통신 비난 '붓물'

최근 터진 고급 옷 로비 의혹사건에 대해 국민들은 비난을 넘어서 울분을 토하고 있다. PC통신 천리안 '나도 한마디' 코너에서 ID KYM5611씨는 "연-연자적이고 분반하고, 정-정신없이 치장하니, 화-회회 낙낙 세상살이 개망신 바로여기"라는 상행시를 올렸고, ID TLY씨는 연정회사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며 "감할 엘리트들은 그런 비상식적인 이야기까지 고스란히 믿을 정도로 창조적이고 열린 머리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심지어는 "이 기회에 시민계엄령을 선포해 악질 기독권자들의 행태를 심판하자"는 의견(KSSCOM)도 있었다.

국민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비난 여론은 붓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금융의 술은/일만 백성의 피요/옥소반의 맛좋은 안주는 일반 백성의 기름이라..."는 훈장전의 시구를 올렸으며, "권력의 단맛을 보면 사람들이 변한다는 데 지금 그렇게 변한 사람들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 불자가 앞장섭니다.

大韓佛敎總和宗

아기부처님의 誕辰을 온누리에 慶祝 드립니다.

宗正 李東光

副宗正 朱寅鉉·崔慧山

總務院長	全南亭
宗會議長	李萬悟
教育院長	金華潭
布教院長	朴青海
監察院長	白東悟
文化院長	崔海正
護戒院長	趙古潭

總務部長 朴賢悟	財務部長 李錦悟
教務部長 尹大岩	規正部長 鄭無碍
社會部長 黃慧光	組織部長 朴大現

各教區宗務院長 諸位

병원부설 빛고을 장례예식장

(장례문화의 혁신)

회장 : 회 정
대표 : 이장국

임직원 일동

◆ 병원부설 장례예식장 증별안내

- 지하 : 영안실 장례용품실
- 1층 : 꽃집, 약국, 청과, 매점, 떡집, 식당, 생선
- 2층 : 201호, 202호, 분향소
- 3층 : 301호 302호, 303호 분향소
- 4층 : 401호, 405호, 분향소, 안내사무실
- 5층 : 501호, 502호 분향소
- 6층 : 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 안내 사무실
- 7층 : 호스피스, 치매병동

■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288-7
(계림 동광고 앞 우성병원 옆 건물)
전화: 062-225-2444/ 팩스: 062-226-4729

禪學, 太極禪院

太極禪無道
참선·기공교정

院長 姜法醒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681-16
TEL : 051)552-7972

대한불교조계종 금하선원

주 지 석청암

신도회 일동

금하선원신도회
불교교양대학각기증문·거사림회

■ 서울시 동작구 상도2동 363-146
장승빌딩 403,404호
TEL : 02)823-9135~6
FAX : 02)823-9134